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100

하늘로

올라가신 예수님

(마태복음 28:16-20, 마가복음 16:14-20,  
누가복음 24:36-53, 요한복음 20:19-21:22,  
사도행전 1:3-11)



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.  
유다를 뺀 열한 명의 제자들 가운데, ‘도마’를  
제외하고는 모두 모여 있었죠.

“로마 병사들이 지금 우리를 쥐 잡듯이  
찾고 있다는 구만.”

“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달아났다는 소문이  
짹 퍼져 있더라구.  
이봐, 문은 잘 잠가뒀겠지?”



**제자들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수군대고 있는데,  
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!  
제자들은 깜짝 놀랐죠.**

**“유, 유령이다!”**

**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**

**“너희가 평안하느냐? 왜 나를 무서워하느냐?  
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?”**

**여전히 제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 
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.**

**“내 손과 발을 보아라.  
유령이 이처럼 살과 뼈가 있을 수 있겠느냐?”**

제자들 앞에 서신 그 분은 분명 살과 뼈를 가지고 있었어요.  
그제야 제자들의 얼굴에 감격과 기쁨의 표정이 드리워졌죠.

**“먹을 것이 좀 있느냐?”**

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자  
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수셨어요.



**“나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, 죽은 자들  
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단다.  
앞으로 예루살렘 뿐 아니라  
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,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 
죄를 용서받는 ‘회개’가 이뤄져야 한다.  
너희가, 바로 그 특별한 미션의 증인이란다.”**

**이 말씀과 함께  
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사라지셨어요.**

**한편, 뒤늦게 모인 ‘도마’는  
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.**



**“이 친구들이! 장난 칠 게 따로 있지 그런 거짓말을  
나보고 믿으랴구? 난 못 믿어.  
내가 직접 예수님 손의 못자국을 찢러 보고  
옆구리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는단 말일세!”**

**그렇게 일주일이지났어요.  
여전히 제자들이 문을 잠가놓고 방에 모여 숨어 있는데.  
이번에도 별안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!  
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.**

**“도마야, 네 손가락을 내 손의 못자국에 찢러 보거라.  
네 손을,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. 그리고 믿는 자가 되거라.”**



도마는,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신이  
너무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.

**“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?  
도마야,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을 거란다.”**

이후에 예수님께서서는 한 호수가에서 제자들 앞에  
다시 모습을 보이셨어요.

그 때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,  
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작은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죠.

날이 밝을 무렵, 제자들이 배를 몰고 물으로 나오고 있는데  
호숫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
**“거기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.  
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.”**

제자들은 멀찍이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도  
알지 못했어요.

속은 셈 치고 시키는대로 그물을 던져보았는데

놀랍게도, 수 없이 많은 고기가 그물을 가득 채운 게 아니겠어요?  
나중에 세어 보니 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되었어요.





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걸 깨달았어요.  
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운 빵과 생선을 나누어주시면서  
직접 아침 식사를 챙겨주셨죠.

“베드로야,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”

“예 주님,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 
주님께서 아십니다.”



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 
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더 물어보셨어요.

**“베드로야,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?”**

그러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어요. 왠지 모르게  
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죠.  
지난 날,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 
자신의 모습도 떠올랐어요.



**“예... 주님께선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.  
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....”**

**“베드로야, 내 양들을 먹이거라.  
네가 젊어서는 자유롭게 행동했지만 늙어서는 자유롭게 못  
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.”**

**예수님의 이 말씀은 훗날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거였어요.  
예수님의 어린 양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 
고난을 당해 죽게 될 거라는 예언이었죠.**

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,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 
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.

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어요.  
예수님께서서는 열한 명의 제자들을  
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부르셨죠.  
그곳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 
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.

**“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 
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말한  
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라.  
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란다.”**





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 근처  
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.  
그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던 날이었죠.

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 
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.

“그런데 예수님, 주님께서  
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는 언제인가요?”



그러자 예수님께서 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.

**“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니  
너희는 알려 할지 말거라.  
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 
너희는 특별한 능력을 받고  
이 세상 모든 곳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.”**

그 말씀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 
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높이높이 올라가신 것이었죠.  
예수님께서는 이윽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.





**제자들이 놀라움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,  
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 말했답니다!**

**“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?  
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 
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.”**

**여러분,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약속하시고  
하늘로 올라가셨어요.  
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 
그분이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니죠.**

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 
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 
그분께서는 세상 끝 날까지  
항상 우리들과 함께 계시니까요.

<CBS 성경동화>, 그동안 사랑해줘서  
고마워요! 그럼 진짜로, 안녕!